

유럽 친환경차 비중 급증…GGM 노사협력 안정적 생산 절실

캐스퍼 일렉트릭, 지난해 10월 수출 시작 후 현지 4만 5300대 판매 노사 갈등 지속뎀 생산 불안정…지역 완성차 산업 경쟁력 부담 작용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티)을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안정적인 작업 기반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유럽 현지 시장에서 EV(전기차) 수요가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최근 노사 갈등으로 불거진 GGM의 생산 불안정 요소가 지역 완성차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가 유럽연합(EU) 지역 올해 1~10월 누적 신차 등록 대수를 조사한 결과 89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며 최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전동화차 등록 비중은 하이브리드(HEV) 34.6%(전년 동기 대비 +4.2%p),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9.1%(전년 동기 대비 +2.1%p), 순수 전기차(BEV) 16.4%(전년 동기 대비 +3.2%p)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 반면 휘발유차 점유율은 27.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p 감소했고 경유차는 9.2%로 3.1%p 하락하며 뚜렷한 수요 감소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전동화 혁신'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GGM에서 생산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해 10월 현지 수출 개시 이후 4만 5300여대가 판매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럽 친환경차 시장 확대는 GGM의 실적 발전의 기회"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독일에서 열린 2025 폴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2만 5000유로 미만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되며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

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 수상은 경쟁이 치열해 문턱이 높은 독일 소형 전기차 부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상품성과 평판을 모두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의 성과는 GGM이 안정적으로 '세계 전동화 시대'에 안착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와 2교대 미전환 등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동차 산업 관계자는 "지금은 물 들어올 때 도둑이 될 시기"라며 "전동화 전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조의 노사상생협정서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GGM 노사는 '노사상생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 목표 35만대 생산 전까지 임금과 근로 여건 등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가 결성되고 파업이 지속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전동화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협정서를 준수하는 것이 기업 신뢰 확보와 지속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성공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이 노사 협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며 안정적인 생산이 곧 지역 청년고용과 산업 생태계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그룹 'WHE 2025' 전시 성료…수소대중화 이끌어

수소 밸류체인 기술·역량 선보여

현대차그룹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국내 대표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와 국내 최대 규모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해 올해 처음 선보인 수소 산업 박람회로 나흘간 2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주말까지 전시가 확대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도 높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등 7개사가 현대차 수소 브랜드 'HTWO'를 중심으로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수소 생산, 수소 충전·저장, 수소 모빌리티,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과 사업 역량을 선보였다.

PEM 수전해, W2H, 암모니아 크래킹 등 수소 생산 기술을 비롯해 자동 충전 로봇을 활용한 '디올 뉴 넥스' 충전 시연도 진행했다. 전시장에는 넥쏘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수소동력 경전술차량 등 다양한 수소 모델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보고 있다. <현대차 제공>

리티 라인업이 전시됐다.

또한 100kW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수소 AGV, 수소 지게차와 탄소 저장 절강 생산 공정 디오라마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린데, 에어리퀴드와 함께 수소 아카데미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수소 기업

·협회와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수소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실질적인 미래 에너지 해결책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수소 활용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기아 트레저 헌트'

역사성·희소성 가진 차량·부품·문서·디자인·브랜드 자료 수집

기아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 발굴·수집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80년 역사와 관련된 자산을 수집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초기형 모델, 콘셉트카 등 차량·부품부터 오래된 책자·기사·메모 등 문서 자료, 역대 엠블럼과 로고·스케치·설계 도면 등 디자인·브랜드 자료를 포함해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캠페인은 기아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보유한 자산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기아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자산 중 내부 평가위원단의 검토·심사를 거쳐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을 기증 또는 대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기아



'기아 트레저 헌트' 대표 사진. <기아 제공>

의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보존 대상으로 선정된 자산을 등록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증정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전문가나 소장가만이 아닌 기아와 인연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브랜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며 "한국 산업사의 의미 있는 장을 함께 완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KGM, 11월 8971대 판매…수출 5.6% 증가

튀르키예·헝가리 등서 인기몰이

KG 모빌리티(KGM)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수출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8일 KGM에 따르면 11월 내수 3121대, 수출 5850대 등 총 8971대를 판매했다. 11월 당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으로 내수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1.4%, 누계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으로의 수출이 늘며 전년 동월 대비 5.6%, 누계 대비 16.7% 증가했다. 차종별로 코란도(1163대)와 토레스 EVX(853대), 토레스 하이브리드(675대), 무쏘 EV(497대), 액티언 하이브리드(280대)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었다.

KGM은 지난 9월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독일 시장 대규모 글로벌 론칭에 이어 지난 10월과 11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 국가별 대리점사·기사단을 대상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하고 수출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내수 판매는 무쏘 EV 판매량이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었다"며 "수출 증가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잔존 가치를 보장하는 '슬림페이플랜 할부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혜택 강화 등 내수 시장도 대응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교통공단 “전기차 전자파, 인체에 영향 없어”

인체 노출량 정밀 측정 결과 발표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8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자파 인체 노출량 정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국가표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 방법(KS C 3380)에 따라 17대 차량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차종(동력기관)별 평균 전자파 인체노출지수는 내연기관차 2.23%, 하이브리드차 3.17%, 전기차 3.40%로 나타났다.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려와 달리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측정된 모든 값은

국제 권고 기준과 국내 법규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안전' 수준으로 확인됐다.

TS는 또 차량 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위치 등을 바꿔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자파의 가장 큰 요인은 차량 내 위치로 나타났다. 총 17대 중 13대 차량에서 전자파 인체 노출 지수 최댓값이 1열(운전석·보조석)에서 측정됐다. TS는 자동차 주요 전장품과 배선이 차량 앞쪽과 바닥 하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차량 내 전자파 인체 노출량 세부 평가 결과는 KNCA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